學生團의歡迎準備

실업가김윤수씨는목도호경상을 / 일반에게소개하며환영을준비중

미령(米領)「하와이」에잇는우리동포학생들이고국을방문하기위하야 오는륙월에 도라온다함은이미보도한바이어니와 그에더한자세한내용을다시듯은즉 그학생단을환영하기위하야 각사회에서준비를하는중이며 지난번에만국상공대회(萬國商業大會)에출석하얏든동양물산회사(東洋物産會社)사무취체김윤수(金潤秀)씨는실디그사람들의정상을눈으로보고귀로듯엇슴으로 다가치동정하는중에도 가장절실한감상을가진바는더욱동사원리용림(李用霖)씨와리일그취지를선뎐하기위하야 각방면에노력중이라는데 더욱이실업가방면에선뎐을엔히한결과 동정을하는사람이면욕으로 장차성적이량호하리라는데 불원간환영준비에더한긔관을 조직하야 구톄뎍으로실현하리라더라

칠안에원연데그와갓치만흔돈을해외에표박하며 근근히생활을하야가는동포중에서는 도더히다수렴할가망이엄슴으로 그중삼만원은조선안에잇는동포에게의뢰하리라함은 어떠보도한바어니와어것은그학성단이돌아온뒤에도 세가지지안어하겟스나 지금에가장급한것은 어식여덩의선비(船費)면사전원가당이라는데 어것은그학성들어고국산천과 고국동포를보고실허하는성각을하는동시에외국에가서고성을하든동포를 보고십흔구리가힘어며치는터로주선하야주지안이하면 안어되겟다고일반은말하더라

學生의渴望

一刻이三秋갓다 / 날마다손을꼽바 / 륙월을기다리어

「하와이」학성단에고국을방문한다함은 전긔와갓거니와 그학성들은뎌번에 그협긔발회사사에 로동지로팔니어갓든사람의자질이만흠으로 그곳에서나서 그곳에서자라서조선이라면자긔의 고국인줄은말을들어 알기는하다 고국산천이엇더한것과 고국풍속이엇더한것을자세히알지못하야 어느녀나한번조혼긔회를 어더 고국구경을하야볼가하다가 이번에 이러한긔회에고국구경을 하게되리라하미학성들의 성각은 실리나오리밧게힘을한다하야도 한업시 깃버하는버하며 자긔나라에잇다가 외국러을수학더힘을한다하야도 가장깃허이라 남의나라에셔나서 남의나라에서 자라나서 고국성각이자나셰나잇든 그학성들은 더발할수업시 깃버하나 다만물질의관계로닥장에 실힘하지못하고 압히지금도만히남앗슴으로 날마다 손을꼽바아륙월오기만 기다린다는데 실로일각이삼추와갓치오라게성각한다더라

物産獎勵의講演

연사의노예성이라는말로 / 일시는더소동을이로키여

소선물산장려회(朝鮮物産獎勵會)의취지선뎐강연은예뎡과갓치저작삼일오후일곱시반부터 시내경운동(慶雲洞)텬도교당안에서 열니엇는데 먼저설태희(薛泰熙)씨의개회사가잇슨후이어서리종린(李鍾麟)씨가조선물산장려회의취지와목뎍(朝鮮物産獎勵會의趣旨와目的)이라는연데로조선사람된우리의장한성활을 다시진흥하라면우리의 것을쓰고 [illegible] 안이하면안이되겟다고약한시간동안이나열변을토하야

텽즁에게 무한한늣김을주엇스며 그다음에는리돈화(李敦化)씨가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는연데로말하든중에 외국인은남의더밧에와서도반다시 자긔나라의것을쓰는데 우리조선사람은본토에잇스면서 남의것을쓰는것은못치못한일이며 이것으로보면우리는의복에아지 모예성을로할한듯하다는말이 밋처긋도나기전에 장리의

호모동이 로부터엇더한사람두어명이일어나며 로예성이라는것은다무엇이냐고사회자오게터하야저러한연사는속히연단으로부터또차나리라고고함을지르며장내는비로소소란하게되야한참동안오형세가리우위험하엿스나결국그사람들만회장하고강연은처음과갓치계속하야림경호(林敬鎬)리갑성(李甲成)오화영(吳華英)삼씨의도도한열변이잇서서 텽중에약일천사오빅명이나되는데 성황속에동아홉시 경에폐회 되얏고 현장에서입회한사람이수빅명이나된다더라

流行하는怪風說

南大門樓에異常한文字 / 조선뢰지에다가글씨를써서 / 남대문루에다가부첫섯다고

한참 평화로운듯하든 경성시내에는 종로경찰서에 폭탄이떠러진이러로 인심이 흔들니여져서 민우흉흉한중에잇는터이믄중이어서시내에 종소리가요란하고 점하야 경관몃사람이 사상하얏다는말이 신문지물것치여 어우요령은 엇게되얏스나 아족까지 자세한던말을알지못하게됨으로 일반은 더욱이엇더한일인지알지를못하야 풍설이미우만히도라단이며어데서무슨소리만나면 별서예민하게더하야 셔드는중에잇서 혹은독립단이 만히들어오느니 명년은 갑자(甲子)년입으로 반다시

무슨일이 잇스러니하는등의풍설이던하야 시민의마음은 말할수업시 흉분된중에잇다는데 저작이일에는 경성의대일 일음놉흔남대문루우에엇더한글씨를써서못친것이발견되야 그글씨는바로온뎡경찰서에 압수되고 현금엄밀히됴사중이라는데 풍설로던하는말을드르면 종이는 장이석자씀되고 폭이한자다섯치씀되는 조선빅지이오 그속에씨여잇는글은「셔녀은비이상후와」(鼠女隱飛二上後臥)라고

하얏다는 대무슨말인지도

路費問題

가장급호것이 / 선비사천여원

「하와이」조선인긔독학원(基督學院)을확장하고자하는바 예산이

各警察署의嚴重警戒

모방면에서모단톄가들어왓다고

일본에서방금열어인 대사십륙회의회(四十六回議會)를긔회로하야중국상해(上海)에잇는림시정부에서 특별히요로대관(要路大官)암살단이란것을 일본으로보내여모모더관을암살코저한다는말이일본런디에퍼지자 일본안에잇는각더관들은밤낫으로 마음을놋치못하고잇든바 요사이에돌연히그암살단의단원일곱명은 비밀히경성에들어온형적이잇슴으로 그러지안이하야도 요사이에들어온흑수당(黑手黨)일본인하야 눈코뜰사이업시경계를하든경관들은 더욱활동을하게되얏다는데 이번에돌어온암살단일곱명은 폭발란과가라육혈포등위험물을만히가지고왓다는말으로시내본뎡서를위시하야 업중히경계를하며이암살단원을데포하고자분수한모양이라더라

職工團의時局强盜

東大門署에서四名을逮捕取調 / 박대한의가텩을수식호결과 / 협박문서와권총을발견하여

시내동더문경찰서(東大門警察署)에서는 저작일아참부터 돌연히활동을시작하야 국히비밀한 가운데에모방면에서 범인을수식 하기에신력하든바 동일정오경에 시내원남동(苑南洞)근처에서네명의조선사람을 인치하야 방금엄중히취됴하는중인데 이제그의자세한 내용을드르면 인천부(仁川府) 화평리(花坪里)출성으로 현금주소가부영한로동자리확무(李晃武二〇)와시내광희뎡(光熙町)연초전미국직공박세환(朴世煥二六)과원남동에사는칠십사번디경성던긔회사직공박태환(朴泰煥)등세명은공모하고작년음십월경에 인천부혈문통(穴門通)모시계상뎜에 침입하야주인을협박하고수빅원어치의금은품을강탈도주하엿스며기타여러곳에서시국을표방하고적지안이한금전을강탈한사실이 발각되엿다는데 오히려 범인들의자빅에의하야 박태환의집을 수식한결과 협박문서와권총연자루와 그외에 아희롤져란감의 권총판자루가 비밀한곳에감치엇든것을 증거품으로 즉시압수하얏다더라

本町署는否認

자긔네는모른다고 / 어름어름하고부인

이에더하야본뎡서를방문하고사실을 [illegible]

또이러호 [illegible]

脅迫狀의遝至

各警察署長에게

그중에는종로가다수 [illegible]

府廳新築地

南大門小學校? / 지난삼일부회의실안에서 / 비공식으로모여결뎡한것

오래동안문뎨가되여오든경성부령사신축(府廳舍新築)문데로인하야비공식으로 지나간삼일 오후두시에 부협의실에서 부협의회(府協議會)를열고 금년도예산추가안(豫算追加案)을 부의하얏든바만장일치로 가결된후 간담회(懇談會)를열고 경성부령신축문데에 더하야도의론하얏다는데 현금경제의 공황으로인하야 여러가지 문뎨가성기게되얏스나 령사를 지울상을선뎡하자고하야여러곳의 예뎡디를선텩하든중에 현금 남더문열헤잇는 남더문심상소학교란 일본인의학교터를 가장뎍당하다고 가하얏다는데 어더로말하면 현금비어서잇는것이안이고학교가잇슴으로어도역시학교와 학무국의 협의를한후가안이면 확실히 미둘수는업스나 그곳밧게뎍당한자리가 업슴으로 부령신축위원들이 다시협의를 계속하얏다하며 이밧게데이로뎍당한터는 시내 텬평통(太平通)에잇는 예전평양더영문(平壤隊營門)자리로 선뎡한후 오후일곱시경에산회하얏다더라

重大犯人二名

강서경찰서에서데포

평남강서경찰서(平南江西警察署)에서는얼마전부터 비밀리에 [illegible]

精神病者의惹鬧

경긔도수원군(水原郡) [illegible] 지나간이일 오후네시경에 시내텬평통(太平通)에잇는조선신문(朝鮮新聞)사안으로들어가서류리창을 께트리며 야단을칠으로 즉시이임을 본뎡서로고발하야 본뎡서에서는 즉시현장에 [illegible] 와서취됴를한바 텽신병자로 판명된바 그서에 류치하야두엇다더라

大豺를打殺

[illegible]

詐欺竊盜의檢擧

[illegible]

三千圓을橫領

仁郡書記가 / 종로서에테포되야 / 현금엄중히취됴중

경긔도룡인군(龍仁郡)저무게의주임서긔리룡하(余容厦二五)라는청년은 저작년십월에 라면에서수납한세금삼천원을 가지고 우편국으로부치라고하다가 마참시간이지낫슴으로부치지못하고도라와서성사용한속 그돈을사용하고십흔마음이나서 그돈을 가지고경성에올라와 처보단이며랑비하얏슴으로 다시자긔집에는가지못하고경성에서방황하다가 일작일에종로서에데포되야 목하엄중히취됴중이라더라

高城에大雪

일주일동안을계속하야 / 싸힌눈이사쳑에달한다

강원도고성(江原道高城)디방에는지난이십일부터눈이나리기시작하야조금도끈칠사이가업시동이십칠일까지쏘다져서싸힌눈이사쳑이상에달함으로사흘동안은우편물까지불통되엿다더라

郵船의乘組員

우편주머니를설취하야 / 바다속에던져바렷다고

조선우선회사비변텬환(辨天丸)에핫든승조원(乘組員)한명이우편실에들어가서 붉은우편주머니를절취하야 바다속에 바린사실을부산수상서(水上署) 형사가듯고지나간일월삼십일오후일곱시경에그변텬환에타고잇는범인을톄포하얏는데 그우편주머니를 무삼연고로바다에바렷는지방금엄중히취됴하는중이라더라(부산)

自稱刑事를檢擧

음식뎜에들어가서 / 돈업시먹으려다가

시내저동(齋洞)팔십오번디에사는김주한(金周漢三五)이라는자는저작어일오전두시에시내공평동잇던한 음식뎜에서 시내옥인동(玉仁洞)사는 김원순(金元俊)씨와소격 [illegible]

陰陽曆의二重歲暮

두번과세가경제에관계된다 / 이것역시생활개선의한가지

실팔세긔이후과학(科學)의진보에의한물질뎍문명으로 말미암아성신그셩과는현더우리인류에게엇더한영향을미치는가 더욱다수한성명과 저산을참담한포연중에업서이고오래년이라는 긴세월을허비한구주뎐란후에는 정신과물질두방면에여러가지로 파란의격동을일으키게되얏섯다 그런데우리의조선사람은우주안의 큰형세를일허남보다뒤셔러지고 쥬위의사셔이군석한것쌘이다 그중에도경제의변됴(變調)는더욱더욱우리의성활을

위협하야 작년에또다시달녀드는그라격은위선전인구의팔활이나졈령하는농촌으로하야금항구뎍(恒久的)산업을일케하야비참한구학(溝壑)에굴느게하고그외에소위상업이나공업이나하는것도또한이와한가지라 우리조선은실업자(失業者)와파산자(破産者)가텩지안이하야 령성하고소조한 경제계의현상은참담하기한량이업서모다쥭겟다는소리쌘어오서해가되면서

우리죠선 의수도되는경성에는폭란소리와총소리가교요하든시가의공긔를파동케하고또한부호모모씨에게 군자금청구와 국경밧연에빈々한독립단싸홈과각처의종더범인데포이니강절도이니하는사사건은인심으로하야금동요하는사마지안이하는어셔이다그런데저게 [illegible] 게되얏다 음력세말이림박한이날에한마더의말을하고자함은 력의두가지세말과

우리조선 인의경제에 [illegible] 것이다상업이나공업을경영하는가거리상일본인과관계가잇서부이두번세음을하지안이치못할사이잇슴에관하야는다시노노할필요가업거니와관형이나회사에봉급서생을하는그네들로양력세말에는상여금이라는 가외의수입이잇서서수머니속에 다소의여유가잇슴을거회로삼아 망년회(忘年會)이니새찬이니하야

적지안이 한지출을하는일이잇는터이다 누구나 모다일년에한번잇는일이라불가할것이업지만는잠구한세월 우리두되속에관습어져잇는 음력세말을 당하야서도 또한전과와가튼 힝사를하는일이엇다 그런데양력이나 음력에엇더한것을 좃치라함은 구티여말하고자하는바가안이지만은양력과음력에 몃칠상거되지못하는 두세밑에 넉넉지못한 낭탁을

짜어내여 비용을헛되이함은 필요가업는바이다 다만봉급성활을하는 그네들쌘안이라 일반우리조선사람은 누구나 일년중두가지년말시를보내고마졸필요가업스며 또한동시에 이것이성활제도에 한가지긔선할것인줄로 성각하노라

雜貨部는廢止

김성환상뎜에서

시내남더문통더광교모퉁이에잇는김성환(金聖煥)상뎜에서는 종리에경영하야오는지물부(紙物部)를확장하기위하야잡화부(雜貨部)는폐지한다하며 김성환씨는요사이신병이잇슴으로 텬안군(天安郡)자틱에서료양하는중이라더라

蓬萊町의行旅屍

시톄는경성부에

삭사일오전일곱시십분경에시내남더문밧봉려뎡(蓬萊町)일뎡목팔십일번디 차석회(車錫喜)씨의집뒤문압길우에 나히스물더여섯가량되여보이는걸인(乞人)복석을한조선녀자한아가 죽엇슴을 본뎡서에서발견하고 시톄는 즉시경성부로넘기엿다더라

集會

▲시내장곡천뎡(長谷川町)십칠번디에잇는조선불교티회(朝鮮佛敎大會)에서는오날밤일곱시에동관안에서강연회를 열고아러와갓혼문데로강연한다더라

問題 [illegible] 演士 [illegible]

國民代表會議 (一)

第一日 (一月三日)

국민더표회의가 상해에서 개최되얏다함은 이미여러번 보도한바어니와 지나간일월삼일 오후네시에첫번회의가 열니는마당에 주비위원장(籌備委員長)남형우(南亨祐)씨가 문저개회한다는말을 선포한후 회원중으로부터 한사람이 말하되 오날사회(司會)는 주비위원장이할아 회원중으로 다시선뎡할아 쏘는어회를예비회의(預備會議)로 할아 정식긔회로할아」하는질문이잇서 의론이분분하다가 결국은이제로부터는 주비위원을 해제하고

대표자들 면 림시로 쥬석(主席)을 선뎡하야 정식으로모긔회하고 각처각단톄에서 파견한각뎌표들의 자격을심사하야 정식임원을 선뎡한후에다시 성뎌한긔회식을힘하고 본회의(本會議)를 시작함이가하다는것으로 귀결이 되야는데 그날그자리에 출셕한각쳐각단톄의뎌표가 모다 륙십여인이라그중에서 림시의장(臨時議長)일원을선거할것과 선거방법은 무긔명투표(無記名投票)로할것을결뎡한후 투표한결과로 림시정부전내무총장(前內務總長)안창호(安昌浩)씨가 림시의장으로당선되야셔가 의장셕에 나아가서 림시셔긔(書記)두명을 선뎡할셔 셔긔는의장이자벽(自辟)하기로되야류션쟝(柳善長)빈더쥐(裴大澤)량씨가피임하얏는데 의장안창호씨가 이러서서 「지금이시간에 비달민족(倍達民族)의뎌표회의가열님니다」 선포한후 일동이여덕셔셔일시에 「뎌한민국독립만셰」 「국민뎌표회만셰」 셰번식부르고 뎌표자의자격심사위원오인을선뎡할것과 선거방법은무긔명투표의련긔식(連記式)으로할것을결뎡한후 투표한결과에 아러와갓치당선되얏더라

오창환(吳昌煥) 류션장(柳善長) 허동규(許東奎) 강구우(姜九禹) 김동삼(金東三)

그리고회의의규뎡긔초위원(會議規程起草委員)다섯사람을선거할것과 선거방법은구두토호천(呼薦)하야서수결뎡ㅎ기로하야 아러와갓치당선되얏더라

윤해(尹海) 신슉(申肅) 장건상(張建相) 오창환(吳昌煥) 박건병(朴健秉)

이왕의주비위원들은 회의에참셕하되 정식임원을선뎡한후에다시심뎡하기로하고 아즉은 발언권(發言權)만허락하고투표권(投票權)은허락하지안이하기로되얏스며뎌표자의자격심사와 규뎡긔초식임원을선뎡한후에는 확실한결뎡이엇기까지 아족방청(傍聽)을허락하지안이하고 독립신문긔자에한하야써사람만입상하게하기로하얏스며 회의중에제반사무는가속주비위원회에위탁하기로결뎡한후시간이다하얏슴으로 의장이뎡회(停會)를선포하얏는더 쌔는다섯시삼십분이엇더라

第二日 (一月九日)

일월구일오후두시에 림시의장안창호씨가승석(昇席)하야 긔회를 선언하고의사(議事)를시작하얏는데 셔긔가회록을랑독함에더하야 착오된것을교뎡할셔 그회록에긔록한긔원년호(紀元年號)에더하야 회원중으로부터 말하되 본더표회의에서 다시결뎡이잇기까지는그전에주비회에서쓰든더로「긔원」과「민국」의두가지년호를병용함이가하다는의론을말하며 여러더표중에서

긔원년호 는우리의고유(固有)한년호이니이것을쓰는것이아모위격될것이업다고하는이도잇고 또는우리네중에긔원년호와민국년호를 그냥병용한일이엇는것도사실이니 다시결뎡하기전까지는긔원년호만쓰는것이올치안어하다는이도엇슴으로 서로의론이분분하다가 맛참내년호문데는다른날의사일뎡(議事日程)에넛키로하야간부에게위임하고 지금은기원년호를거록한더로 회록을통과케하기로결뎡되얏고 그다음에림시의장이 지금부터뎌표자자격심사의원의

심사보고 가잇슴을선포한후서긔로하야곰더석(代席)케하고회단(退壇)하얏는데 그후에는본회의를 오후다섯시까지만할것과 한사람이한문데에더하야세번이상은발언하지못할것을 결뎡한후자격심사위원중에 오창환씨가심사의셜과를보고하니 그심사한바는심사위원이 림시졔뎡한 심사법규에의지하야 됴사한것인데 심사한셜과는(一)아모결뎜업시자격을인뎡하는내표가사실오인이오(二)수속상흠설(手續上欠缺)과(三)의혹뎜(疑惑點)으로인하야 회의에서의결하게된더표가아홉사람인바그아홉사람중에 북미국민회(北米國民會)뎌표안창호씨에더하야는 심사위원중강구우씨로부터 반뎌의정서를뎨츌하얏스나 그요지가아러와갓더라

『북미 국민회는지나간분데 이지만은 위임통치청원(委任統治請願)의혐의를밧는 북미대한 인국민중앙총회(北米大韓人國民中央總會)와 의관계를끈은후 국민대표회에 참가함이가할줄로생각함』

이상에긔록한심사위원의보고에의지하야「一」는아모의론할것업시통과하고「二」는더강의론한후에통과하며「三」은 하나씩의론하야 각각통과하기로 설명되얏는데 데일종으로 아모의론할것업시 통과한더표가사십오인이오 데이종으로의론한후에 자격을인뎡할 더표가심사인중에○○당더표로 파견된두사람은 자긔들도 출셕을중지하겟다는요구가 잇슬뿐너러 그○○당은그전파갓치 분립(分立)하야 잇지안이하고 국제당(國際黨)에 알선으로통일되얏다는 소식이 잇스며쏘한

모당대표 두사람이참섯을더인즉 ○○당더표의일체는 후일에자세히내용을사실한후 자격의인뎡여부를결뎡하기로하야사인중에십이인만 통과하얏스며데삼종으로의아뎜이엇는더표구인중에 빅락현(白樂鉉)더룡서(太護瑞)두사람만더끼 토론한후통과하고 뎡한시간에지낫슴으로 러일에다시계속토론하기로뎡회하니 셔는오후다섯시더라(러일쏘계속)

波瀾重疊호青春男女

처녀와총각이작반하야단이다가 / 평양에서경관에게힐난을바덧서

경찰관리가 죄인을포박하야 간다하면 물론경찰서로가는줄만 알어왓스나 만일감금을 한다하면류치장이나 감옥밧게업슬줄을 누구나아는바인데 지난십팔일오전 아홉시경에평양부남뎡(平壤府南町)이십오번디에서 엇더한순사에게 포박을당한 청년남녀두명은 경찰서는 돌너지도안이하고 바로순영리(巡營里)오십구번디 리뎡근(李正根)의집으로가서 그림자가사라더버리엿는더이것에파연엇지된일인지「산도야지」에게몰니여간사람은혈긋한아도 차질수업다는 예용으로 순사에게잡피여온 남녀두명의종셕은 일시묘연한 상태에싸지여일반의의심을 일으키고 동시에긔괴참악한평론이눌어가게되엿섯다더라

青春男女는誰?

평양으로살내왓든 / 처녀총각의두사람

전긔청년남녀의종적이일시묘연하게되엿든 순영리오십구번디 리정근의집은 어청년남녀를 포박하야온순사의 주인집이엇는데 두남녀는 평북티천군음내(平北泰川郡邑內)출성으로 남자는 박왕석(朴王碩二二)이오녀자는 박성서(朴成西一七)이라하며 각기처녀며총각의신분으로서로뎡을통하야화촉할근달아러에 향긔로운 인연을맷고 [illegible] 부모의반더로 의달은 [illegible] 차라리쥭어버린다는 결심을가지고 부모와닷지안이하다가 부모도할수업다는 승락하에 얼마전평양에와서 전긔박영수집에 주인을뎡하고잠시우서하게되엿든것이라더라

旅館이監房?

두남녀를감금하고 / 여러가지말로힐란

이순사는 평양경찰서에 근무중인라모(羅某)이라는데 두남녀를포박하야 자긔주인집에 방에집어넛코 외출을감금하며다시별수말로힐란하고 위협하다가남자박왕석은그이튼날 박왕석의주인박영수의집에다리고가서

무슨됴사 하야불일에잇삿니 잘보류하야두라고말하고녀자는자조불너내여 여러가지맘로진게도하야보는데하고 다시달내여도보앗는데 그리자하로를지나서그녀자의모친이왓섯는데 이순사는그모친에게터하야서도 아직됴사할일이잇스니도라가잇스면 우엇이나열려업시몰보아쥬다고말하얏다하며 그후사임면에어녀자의모친은순사의

업는돈을 타서자긔쌀을다리고평양뎡거장에서 차를타계하엿스며 남자박왕석도고향으로도

「立春」

오날은립춘이다 세도한 광선이 점점우리 북륙(北陸)을 덥허옴으로부터 이쎄는 우리은더디밤에 봄쳘이드리온다 명렬히 치운바람이변하야온화한춘풍에 부러오는 동시에왼세상을 덥혓든 눈과어름이다녹아바리고 디구에 초목군성이모다쾌락한 노리를불러서 여세상은 과연화긔가 륭륭한터평쎄제가될것이다 우리도 추어추어하며 사지를보고리고 단이든신데가 활발하게되야서 어데까지유쾌한성활을 자유로 할것이다 아、아、한가운 립춘

공화서마서 소위물가됴절(物價調節)이니 성활긔선(生活改善)이니소비절약(消費節約)이니하는소리는그동안일반사회에서부로지수는일터불데가되얏섯는딕 과연경제핍박의고통으로말미암아자각함이잇슨수고인지요사이일더나는조선물산장려(朝鮮物産獎勵)이니금주단연(禁酒斷煙)이니식산공제(殖産共濟)이니하는 모든계획과조직은가장굿셰인셰력으로부로지

薪山玉

第一三三回　碧霞

위험이눈압헤다닥친영자! 이방에드러온사람은누구? (七)

이써에영자의입으로브터 흘너드러가는물이 덕호의말은목구녀를 축인섞닭인지 비로소괴로워하는소리가 뚝々히들니엿다
「아ー앙히 가슴이압허 응ー아가ー사람이죽겟는걸! 압허々々」
라고덕호는 부르지々면서가삼을손으로문질넛다
「잠간농안만 참으세요 곳의사가올터입니다」
영자도민망히생각하는모양으로 이러케더답하얏다그리하야영자의 말이 덕호의귀에드러갓는지 덕호는 서위정신이다나아간사람의 눈이허청보는것과갓흔눈으로영자의편을향하야보면서
「영자! 내가잘못하얏소 아ー모든나의잘못한죄를용서하야주어요 응ー영자! 용서치못하겟소?」
라고덕호는 원몸에남은힘을다되려서 저우토막々々 잘너진말을하얏다 앗가덕호가술잔을드려마시며 자긔의량심을 자빅한다고하든말을 이써에모다ㅅ짓말이라하야 조곰도신용치아니한영자이지만은 지금에얼마아니되야죽음의나라로 써나갈것갓흔덕호가하는말을 그와갓치신용치아니하지못하얏다
그리하야 지금에덕호가 힘드러하는말이 영자의차듸차게뭉친셜심을 바늘(針)과갓치가온데를쏠는것과갓텃다
「아ー압허 담々해 가셈이써여지는것갓흔걸! 응ー아귀가삼이야」
하는덕호는 가삼을두손으로움키여쥐면서 방바닥에서 이리져리서너번을 듸ㅇ구럿다
「옥희야! 응ー 여긔우리옥희가엽서」
하며덕호는 별안간괴로움을참지못하는모양으로 몸을반쯤벌덕이러나면서 방안을휘ー도라다보앗다
그러치만지금에서울집에잇는옥희가 이쏫에잇슬리치가업섯다그리하야 이삼초농안가량이리낫다가 도로뒤로자세지엿다
「네ー 옥희말삼이세요 지금곳옵니다던화로네려오라고하얏슴니다」
라고영자는 입울덕호의귀에갓가히하야더답하얏다
「아ー압허々々! 벌셔들녀서! 아귀ー가삼이써여지네 영자! 영자! 응ー나는마지막으로여자에게부탁할일이잇소 저ー아모되가업는 어린옥희와평남을바이야! 영자가나는미워하겟지만은 그아모죄업는어린것들은미워하지아니하고 사랑해주겟지? 응! 지금에나는아모에게도 그것들을 부탁할곳이업고 오직영자에게 그것들을부탁할밧게다른사람이업소!나의모든잘못한죄를용서하고 져ー어린것들을 아모조록사랑하야 모든일을지도하야주기를나는황천으로 도라가면서간절히바라는바이오 영자! 나의말을경홀히싱각지마오 저ー옥희! 평남!」
이러케덕호는말하면서 또다시음을 일히키랴하얏다 어리셔은아달에게 마지막으로한마듸의말을 건늬랴한모양이엿다 그러나저ー평남은 자긔아바지가죽음의나라로 써나라하는최후의괴로위함을 조곰도근심에되지아니하는모양으로덕연히 욱크리고안져서어랑경을펄건히따라다볼쑨이엿다
「아ー압허々々 가삼이야!」
덕호는최후의고통을 당하는것과갓치 무슨물건을웅키려쥐라고서너번헛청녀어고쳐손질을하얏다
영자는이써에 비로소자긔의참아음에옴직더여덕호의손을 자긔의헌손을네여미러 갑안히손을네여놋케하얏다
덕호는 지금에영자의힌손이자긔의손에대일적에 손을비르々썰며 영자의손을쪽ㅣ쥐고 영자가자긔의모든잘못한죄를용서하고마지막안혜의싸뜻한정을 늣기면서이세상을써나 죽음의나라로셔나는 최후의숨이쓴어지지엿다
이써에덕호의숨이막쓴어지라할써에 의사가급히드러왓다 의사의『레으코트』는 비랑울이뚝ㅣ글써러지엿다
「인력거를타고 오라하얏든것이맛침인력거가 다나아가고업는이닭으로급히거러온다는것이이러케늣게왓지 그런데앗가말과갓치 그처럼 위티하시지는 아니하지」
라고의사는계집하인을보고말하면서급히신을벗고방안으로드러와다
『덕화로는엇더케되엿는지 자서한말삼은잘듯지못하얏슴니다그런데엇던케되셧슴닛가강도와격투를하섯다고덕화로하얏스나와이그럿슴닛가」
라고의사는두러누어잇는덕호의엽흐로갓가히가며영자에게무럿다

自作會에갓다가

晉州支局　金仁哲

人生은人生다운生活을반드시하여야될것이다!
사람은自己가사람인것을반드시覺하여야될것이다!
우리는過去의深厚한歷史를背後에두고茲로向上할야고힘쓰고의쓰는우리이다 死에서生으로 生에서行으로 無爲에서有爲로光榮의月桂冠을엇으라고貴한生命을犧牲하며赫々한鮮血을앗김업시흘녀서無窮花東山에『녯봄』의日光下에榮光의歡樂을求하라는우리이다! 그러면現今우리의立脚地는엇더한가!亂하고危하야그하고자하는바와 엇고자하는바를意味로取得하기難하나 아ー이를慣하다할는지 命하다할는지 果然말하기難하도다‖嗚呼라우리들이여?우리는百般이남과갓치못한次에其中에도難辯할것은唯我二千萬民衆이經濟的滅亡에陷하얏스니釜中之魚로同치아니치못할可憐한우리의生活이안인가!果然우리는何等의技能도財產도權能도무엇도업술지나오즉맛고의지할것은 生命泉인土地하나뿐어라!이도또한온전한所有權은三分二以上은他에歸하고其四의所得으로僅々孜々히生命을助長하니 엇지此로써完全한生活을長久히保存하리요 果然우리의生命은朝陽의草露요 風前의殘燈이라! 生存與否를不可論之러니實노痛歎함을不已하노라 嗚呼라如此히悽切慘切을聞하고我를助援할者誰이며我를生케할者其亦誰리요!生하나死하나相助할者우리며相扶할者도우리며不運에서幸運으로前路를開拓할者도우리로다聖書에記하엿스되『求하라또한주실것이요 찻자보아라맛날것이요 門을두다리려라주실것이라』하섯스니求하면 엇을것과차지면만날것을信仰이明白히證明함이니 垂首搖尾하고僥倖과幸運을期待함은現時에ㅣ달님의子孫이할티가안이로다
覺하라!惠하라!醉生夢死에서우리의生命은急迫하엿다?沃野千里에生產物과南北畓에收穫農物을우리가언제利用하여보앗스며微々한工業品이나마其經營의功과織夫의勞를同情하여본적이有하엿는지?爐火를케여斗下에置하는者업도다 正路를두고行하지아니하며安宅을바리고居치지안어하니誰不弄笑며誰不慨歎이리오威이말하되弱肉强食의時는新世紀의行事라云하나然이나天變의巨波가到過處에弱者가其形勢를不可保有하야痛哀의부러지짐을不免함은歷史와經驗이證明히여日々當事가明確히指示하도다故로弱者는强者의區域을脫하여야可히生存을保障할지라그러면우리는死에서生으로進하라면우리는반다시우리것을用하고우리것을食하여야하갯도다果然自作自給은一大生脈이라우리의古有의物產出專用하는同時에製造와改造로進化하여야하겟슴은二言을不待할지로다
新風潮到處에數多의會와種々의團이組織됨은豈不美哉리요마는오직自作會의出生은나의眞情으로늣김을마지안이하며그의生命이永遠토록無窮花江山에이름다운열매맷기를나는企望하노라

各地報道

私立學校建築問題

江原道金化郡近東面私立學校期成會發起에는如何한頑固의性癖일지라도贊成아니할수업스며同情아니할수업도다同面은大槪交通上便利치안인地方으로産物上豐富한價値는近郡近面에落伍치아니한다할수잇스나다만敎育의機關이不充分한故로一般人士의遺憾이러니昨春에同面光三里居李鉉基氏는憤慨蹶起하야現金五百圓을支出하야學校資本에補充할생不啻라追後라도此學校가完成되기々지는幾百圓이던지幾千圓일지라도寄附할目的이라宣言하며發起하엿다그러면同氏의由來履歷은如何한가本是農業出身으로舊時代의智識도小有하며自手成家하야幾十萬圓의相當한財産을致하엿스나固執不通하기로는有名하야當地에서守錢虜의批評々지有한터인데今番此發起에對하야그慈善心과그公益은可驚可賀할만하도다同氏는如斯한奮發心이何에서生하엿는지未知어니와참으로新時代의思想도難得할事이로다此에伴하야同情된同面有志諸氏는後援코저하는熱性誠心은爭先爭後로寄附金이遝至하는데아즉々지學校가完成치못한것은同面監督者躊躇에關因되나不遠間完美한效를得할뜻하다더라(平康)

斷煙同盟會組織

忠北淸州郡賢都面陽地里居吳甲秀吳熙龍 吳靈秀諸氏의發起로本年一月一日부터斷煙同盟會를組織하고目下進行中인바賢都面一圓은全部組織된터인데其內規를듯건데吸煙하다가發覺되면一圓의規則違反金으로徵收하고烟草를購入하다가發見되면二圓의違反金을徵收하고煙竹을携持하얏다가發見되면五十錢의違反金을徵收하기로制定하얏는데着々進行된다더라(淸州)

表忠寺定期總會

慶尙南道密陽郡表忠寺에서는去一月二十八日에第十二回定期總會를開催한바決議事項은住持趙東煕和尙이登壇하야老少大衆은各自의意見을講討하야吾敎發展을企圖할趣旨로熱々한開會辭下에會를開하고議案을進行한바敎育에對하야는表忠學院은從前計劃과如히三個里中央으로移轉하게하고留學生은旣히在學生六人外에白寅寔、孫永稹、全顯明三人을增加케하고尼生ㅎ錢隨하야將來布敎에採用하기로하며布敎는從前의布敎堂을一層刷新하야佛敎夜學會를組織케하고夏季를利用하야全郡에巡回講演을經營케하고職員交通과前年度決算報告와本年度豫算報告가有한後閉會하얏다더라(密陽)

小作人支會設立

黃海道載寧郡三支江面金胤洙氏의發起로一月十八日下午一時에載寧公立普通學校內에서小作人相助會載寧支會創立總會를開하얏는데當地紳士及小作人八十五人이會集하야臨時會長吳世昌氏司會로開會한後例에依하야會長의開會辭가有하얏고京城本部理事李昌煥氏의熱烈한講演을終了한後一般任員을選擧한바其氏名은如左하며支會顧問으로推載한本郡守朴正純氏와臨席하엿던警部朴來鳳氏의親切한祝辭가有한後同五時에閉會하얏다더라

會長吳世昌、副會長金胤洙、理事李傑浩、金成中、李容植、車泳淑、監查金贊洙、顧問朴正純、佐藤英太郎、金容照、贊成員金景舜、崔承鎬、林道卿外十四人(載寧)

主日學校卒業式

全南光州錦町基督敎會의經營인主日學校에서는去月二十八日午前十一時에第一回卒業施賞式을同會禮拜堂內에開催한바百三十六章讚頌歌로金剛氏祈禱며崔昌東氏聖經朗讀으로校長黃尙鎬氏司會下에順序에依하야着々進行한바卒業生이三十三名이며進級生이百三十二名이며一年精勤生三名이오百名以上을傳道한生徒가二十一名이엿다特別히精勤生、傳道生、에게賞狀을授與한後卒業生一同의卒業歌가有하얏스며崔善喜君의送別辭와金昶國牧師의勤勉辭며來賓代表로姜泰成氏의祝辭가有한바金東煥君의答辭며金在錫君의學事報告가終하자賞品授與를하고三章讚頌歌로金牧師의祝福祈禱로同零時三十分에閉會하엿다더라(光州)

甘谷里模範事業

論山郡夫赤面甘谷里區長洪鍾斗(四一)氏의發起로込機(가마니틀)數十臺를購入하야區內人民에貸付하고副業을奬勵식힌바甘谷里九十餘戶에月收入이統計每月四百餘圓이라더라(新都)

淸州에工業發展

忠北淸州地方은忠淸北道에重要點인바年來에鍮器工場이업슴으로附近地方에서는鍮器를買受할時는必히安城이나平壤으로서輸入되는故로遺憾이라고人士들은말하던바인데大正十一年十一月부터朴壽弘氏의經營으로工場을淸州淸水町에設立하고各種鍮器를善手職工의技術로製造販賣하는데本地方에工業場所가設立된것은讚成할만하다더라(淸州)

幼稚院懇親會

旣報함과如히金泉幼稚院은金陵靑年會의經營으로創設된바爾今幾個年星霜에良好한成績으로經하얏스나此幼稚院에對하야諸般兒童遊戲具가完備되지못하얏슴으로一般은苦悶中이더니一月三十日에兒童父兄懇親會를開催하고諸般事爲를討議한結果左와如히捐助金이遝至하얏다더라

李鍾斗　金季用　金德守各二十圓　金寶賢　朴泰安　白鍾基　朴魯益　黃二閣　李鳳玉　曹允德　張子賢　黃一河　金斗成　安十潤各十圓　李正得　六圓　高德煥　金[illegible]　李慶一　徐正均　[illegible]永述　姜利寶　魏進植　金明玉　鄕東各五圓　李錫龍　ㅣ圓　裵龍基　鄭致淳　崔錫台各三圓　崔巖元　高泰鉉　具末出　金貝貞　趙相泰　金慶會各二圓(金泉)

一般通行者不便

東萊溫泉場의一橋梁은年久朽敗하야一般通行에不便利가多有한바東萊署長이新任當初에改築하기로宣言한지가許多時日을經過하얏스나如何한處理가無함은慨歎不已라더라(東萊)

土奬會宣傳方針

去一月二十九日夜에咸興土産物奬勵會에서는任員會를基督敎靑年會內에開하고宣傳方針에對하야議論하게되야陰曆正月과其翌日에一般會員이一齊히土産物로製造衣服을着身하고市街를巡回하며宣傳『세라』를하기로決定하얏다더라(咸興)

鐵原郡面協議會

面協議會는議決機關과如히廢止한趣旨는아니나面共公事務에愼重한攻究와眞摯한意見을披露케하야面豫算의性質과其他面行政의趣旨를一般에게宣傳함과共히郡民指導啓發에一層努力할方針下에郡屬沈雲澤氏는雇員任澤準氏를帶同하고面事務指導次本月五日부터各面에出張할터인데諸問件은十二年度面豫算編成과諸證明公簿閱覽과面基本財産造成할國有林野의貸付願件等이라더라(鐵原)

咸南巡査募集

咸鏡南道에서는三月二十五日午前十時에各警察署에서朝鮮人巡査試驗을執行할터이라는데志願者는自筆履歷書에民籍謄本을添付하야近處警察署에試驗前日々지願書를提出함이可하다더라(咸興)

嚴氏의道德心

忠北淸州郡四州面永雲里居嚴奇榮氏는資産全部가不過三四千圓의價格인土地로勤農資生하는바氏의親任和順은一分의財産이無한지라十年前에十斗落畓과十斗落田을分給하얏스나和順은本性이浮浪하야各處에債務가多大한故로氏는自己의土地十斗落을賣渡하야和順의債務全部를自擔支拂하고其日노爲始하야各種雜稅와家用全部를自當히야오던바今年에至하야各人에게債務가又至千圓인것을知하고所有畓八斗落를賣渡하야千圓의債務를報償하얏는데氏의慈愛及道德心은可賀할생더러二三次식土地分給한事는참으로稀少한事이라고頌聲이遠近에藉々하더라(淸州)

監察官西湖視察

咸南道內各郡各面事務를視察하기爲하야咸興에滯在中이던時實監察官은去月二十八日에藤原警察部長其他隨行員과伴하야西湖津에出張하야水産場及學校狀況을視察하고齋藤運輸株式會社專務川田氏로부터具陳한當地住民의熱望하는築港及海水浴場設置問題에對하야聽取하고當日에灣內를詳細히視察하엿다더라(咸興)

敎役者修養會

朝鮮南監理敎會에서京城開城地方과開城北地方이聯合하야本月六日부터十日々지開城敎會旅宿舍에서敎役者修養會를開催한다는데全部普當經이며講師는河鯉泳、王永德、州宣敎師와梁柱三、尹致昊兩氏며聽講生은約四十人이라더라(開城)

慶南道郡屬講習會

慶尙南道廳에서는二月二日부터道內各郡屬을召集하고十日間豫定으로行政法을講習할터이라는데該講習會에參席한郡屬과講師氏名은下記와如하더라

姜漢鉦　姜昌寅　秋鶴淳　申泰亨　金炳鎬　金敎權　李溶均　朴容模　梁旭煥　房顯永　趙乘鉉　鄭進　崔景烈　金義鎔　河鍾卓　李炳倚　李鍾啟　李在浩

講師氏名은道理事官石本實外四名이더라(晉州)

釜山靑年會에서節約大宣傳開始

釜山同胞의生活難은世人共知어니와當地靑年會에서는諸般解決問題에憧憬하던바陰正月元旦을利用하야大大的으로消費節約과土産奬勵의大宣傳할터이라더라(釜山)

斷煙同盟會

沃川郡伊內面伊院里에서는同面長姜在琦氏發起로消費節約을目的하고斷煙會를組織하얏는데其同盟規則은每戶의每月煙草及煙竹代金으로同盟會에一圓式納入하기로하고吸烟하는事實이發覺되면一圓에同盟規則違反金을提納하고烟竹을携持하얏다가發覺되면五十錢의違反金을徵收하야發見人에게二十錢式給與하기로決定하얏다는데實行한지二十日間에同盟規則의違反한者가二名이라더라(沃川)

各面吏員의注意

鐵原郡屬沈雲澤氏는客冬에金化로부터本郡에轉勤하야面事業을監督하는데誠을彈하고力을竭하야各面文簿를整理할시晝間은勿論夜役을幷行하야諸般事務를一新處理함으로各面吏員은其誠意를感服하야一層注意를加한다더라(鐵原)

斷煙會成立

論山郡夫赤面에는斷煙斷酒會를組織하얏는데會長은面長金容寬氏가被選되엿는데十五區里에支會를附하고完全히成立되야規則을遵守치아니하면酒에一圓煙에五十錢이며陰曆歲酒도아니하고玄酒나醴酒로設備하게하얏는바此會는夫赤靑年會에서發起한것이라더라(新都)

商業校의不安定

現今釜山府瀛洲洞에位置한釜山公立商業學校는朝鮮人商業智識을養成하는敎育機關으로써元來釜山公立商業學校라稱하엿든바昨年度의敎育令變更同時에日本人敎育機關인釜山公立商業專修學校를釜山公立商業學校라稱하고本來釜山公立商業學校를釜山鎭公立商業學校라改稱하얏는바其內容에依하야一般當地人士는不平이잇는바此는簡單히思料하면學校看板改稱에何等의關係利害가無하다할지나마實은不然한內容이在하다日本商業校所在地는釜山南部에在하고朝鮮商業學校는釜山北部에在함에旣히敎育令에伴하야日本商校만南部商校라稱하던지同時는該校만善取할것을不拘하고元朝鮮人側의釜山公立商業校의看板을[illegible]하고本釜山商校를釜山鎭公立商業學校로改稱하라함은如何한理由인가?俗語에前家를殺하고後家를毁하라함은人의人된良心을自暴함이안인가?元釜山公立商業校는十五六年前의看板을使用하얏스며該校卒業生도四百餘名에達함에全鮮各地에活動力이優秀하야就職紹介의特典과名譽가만혼지라故로元釜山公立商業校의聲名은卒業生就職의路가될만한名望을爲하던그의看板을日本商校에서取한다함은無形的對抗心이滿腔한自體를現함이라하야以上의意味가안이다하면如何한理由로써長久한歷史를가진朝鮮商校의看板을貴하다하야釜山鎭에位置함도아인當校를釜山鎭이라는名稱을失치가업서日本商校를釜山公立商業校라改稱하는가?或朝鮮商校는新築하는位置를付한다하더라도其地域은東萊郡이니그러면東萊商校라稱함은無妨이나然이나商校를東萊郡에置한다함은너무나寂寞지아니할가?그러면釜山府內에二商校가在한즉南部北部의區別를付할은正當이요第一第二의名稱를付한다하더라도朝鮮商校가先設되엿슨즉第一商校의名稱를付함이正當이라하야極端問答으로서意味하야活至於各部人士々지不平裡에서善後策을講究하는中이라더라(釜山)

小作會의陳情

全南麗水郡小作聯合會會長全秉洵氏가去月三十日에麗水郡廳에陳情書를提起하엿는데其槪意는本郡地主金漢昇氏가大正十一年度賭租를捧收할時에召羅面小作會長鄭永奎氏의斡旋에依하야斗量을公平히하고重量를比較한즉前年度一石量은一百八十斤이러니今年度一石量은一百二十五斤이라하니一石에對하야五十五斤의差가生케하는手段와方法은歷史上으로見하여도古文에無하고今文에도無하며全世界로觀하여도北鮮에도無하고南鮮에만有하다하겟스니然則今年의誠을考하면前年의增을推測하겟고一地主의苛酷을例하면百地主의行爲를可知할지라郡當局에서도此地主小作間에好誼的으로迅速히解[illegible]나고再度陳情함이라더라

谷城郡有志의郡誌刊行

烈女

鄭召史　良人千大雲의妻이라大雲이有惡疾하되猶盡其婦道라니其姊聞知하고托事率歸하야欲嫁他處러니鄭召史知其故하고乘夜逃來夫家러니未幾에夫死亡則居喪哀毁라其後에聞姊死하고乃曰兄이欲奪我志하얏스니我何往哭이리오하고但送祭奠하얏고或有欲奸者면以死不從하고常以刀自備하니人稱其烈行하니라

姜氏　稼翁李基義의妻이라郡舅姑以孝하야極盡口體之養이라舅姑於冬月에思筍菜故로即往竹田하야一夜泣之하니竹筍이戢々而生하얏고且其夫病에百藥이無効하야轉至危劇이라齋浴禱天하야願以身代하고百日山祭에欲得靈藥에夢有一老人이指示山中石田曰彼有靈草하니異聖藥이라하야心異之往視則果有三枝九葉之草故로採其根而前進하야果得差效故로事復其家하고命旌하다(未完)

搭令辭

▲오날은립춘일이마 지해년도발서하절후가되엿고나오날부터는만리(萬籟)가일막양춘의긔운을엇어서반도강산에춘풍화긔가롱々하야 다각기정력의 성공을준비하는도다▲우리도 이것을 싸라써를일치말고 각방면으로 활동하야 교육가는교육계로 상업가는상업계로 롱업가는 롱업계로공업가는공업계로서로기타무엇무엇여러단체덜도▲서로서로도아주며의호하야완전히긔초를종하얏다가다각기공하는동시에는공락원(共樂園)건진랑만(天眞爛熳)한중에서티평지심을지어볼지어다(회망자)▲지나간이일오후여덜시부터 시내종로사거리에서 포목상(布木商)하는허윤석(許潤錫)씨상뎜에서불이나서 이웃집화평당(和平堂)약방이지년소(延燒)되얏는데▲손해는후오륙만원가량이라하며 혹은삼사만원가량이라고한다 수화의재앙이라는것은 참으로비참한 일이야삽시간에 여러만원의손해를 당하나잇지공구치안니하리오일반은극히주의하야이와갓치비참한사정이업도록주의하기를권고한다(권고성)